



출발을 기다리는 서해금빛열차. 금빛이란 이름에 걸맞게 기관차를 환한 노란색으로 치장한 것이 눈길을 끈다. 서해금빛열차에는 느긋하게 힐링 투어를 즐길 수 있도록 아랫목의 온기를 담은 온돌마루실을 비롯해 족욕탕 등을 갖추고 있다. 객차내부도 한옥의 온화한 느낌을 살린 것이 특색이다.



온돌마루실



족욕실



온돌마루 객차 복도

## 슬로 트레인투어...아랫목 온기를 그대에게

### 서해금빛열차 타고 군산 근대사 투어

서울 용산~전북 익산...평균시속 80km 객차에 전통 온돌방·편백나무 목침까지 승무원이 이벤트 진행...3호차는 족욕실 원도심 근대사 투어·맛집 여행도 인기

여행에서 열차, 비행기, 배 등 교통편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나를 목적으로 옮겨준다는 용도에 방점을 찍는다면 신속성과 편리성이 우선이 될 것이지만, 때로는 그것을 이용하는 자체가 여행의 목적이 될 때도 있다. 열차는 그 자체로 여행의 목적이 될 수 있는 멋진 교통수단이다. 여행의 감상을 표현하는 '객차감'이란 말이 열차만큼 어울리는 것이 또 있을까. 그런 느낌은 최신행 고속열차보다 오히려 채 100km도 안되는 속도로 여유롭게 달릴 때 배가 된다. 서해금빛열차는 바로 그런 슬로 트레인 투어에 비중을 둔 관광열차다.

#### ●온돌마루, 족욕탕, 차내 이벤트까지...

5일부터 일반영업을 시작한 서해금빛열차는 객차 5량의 단축된 구성이다. 탑승인원은

254명. 서울 용산에서 전북 익산까지 247.8km를 평균 80km 안팎으로 달린다. 최고시속 330km인 KTX와 비교하면 '느긋하게' 달리는 열차다.

서해금빛열차가 자랑하는 시설은 온돌마루실이다. 객차에 전통의 온돌방을 재현했다. 황토마루와 온돌마루로 나누는데, 바닥에 난방을 설치해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여행하는 재미를 느끼게 해준다. 피곤하면 객실에 비치한 향기 좋은 편백나무 목침을 베고 누워서 갈 수도 있다. 코레일 홍보문화실 흥홍환 차장은 "정식 운행 전부터 온돌마루실에 대한 관심이 높아 이미 두 달치 예약이 꽉 찬 상태"라고 소개했다. 다만 전망을 위해 객실 폭을 차창에 맞추다보니 4명이 들어가면 다리를 쭉 뻗을 여유가 살짝 부족한 것이 아쉽다. 황토마루 5실, 온돌마루 4실 등 전체 객실이 9개 밖에 안돼 예약이 쉽지는 않다. 기본 운임 외에 객실당 4만원의 추가요금을 내야하는데 3월까지는 개통기념으로 2만원에 예약할 수 있다. 차량편성의 중간인 3호차의 족욕실도 서해금빛열차의 자랑거리다. 습식 4석, 건식 4석을 갖춘 족욕실은 '슬로 힐링 투어'의 참맛을 느끼게 해준다. 아로마향을 가미한 따스한 아산 온

천수에 발을 담근 뒤 눈을 감고 달리는 기차의 기분 좋은 흔들림에 몸을 기대면 마음이 절로 편안해진다. 족욕실 역시 예약은 필수이고 습식 5000원(20분), 건식 4000원(30분)이다.

족욕실이 있는 3호차는 다양한 이벤트 공간이기도 하다. 관광승무원들이 이벤트를 직접 진행하고, 요일에 따라 서천 국립생태원의 해설사가 진행하는 생태체험과 쇼타임코미디를 소속 개그맨들의 개그 이벤트도 만날 수 있다.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내부

####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군산 근대사투어

서해금빛열차의 정차역 중 당일 또는 1박 투어를 즐기 좋은 곳 중 하나가 군산이다. 오전 8시27분 용산서 출발하는 기차를 타면 11시46분에 군산에 도착한다. 부지런히 움직이면 군산의 핵심코스를 관광하고 오후 4시

42분 용산행 기차에 탈 수 있다. 하지만 여유를 갖고 군산 관광을 즐기려면 하루 정도는 묵는 게 좋다. 군산의 관광 콘텐츠 중 원도심의 근대사투어는 인기가 높은 코스다. 지난해 여름 KBS 2TV '해피선데이-1박2일'에 등장한 이후 더욱 유명해졌다. 군산은 일제강점기 우리 쌀을 수탈해 일본으로 보내던 수출항이었다. 곳곳에는 그런 역사의 아픔이 남아있는 건물이 있다. 8개 구불길 중 6-1 탁류길은 근대사투어의 코스다. 탁류길은 제목에서 짐작하듯 백옥 채탄식의 소설 '탁류'에서 이름을 땄다. 투어의 시작점인 군산근대역사박물관에서 고달팠던 당시 민초들의 생활과 일제수탈의 역사를 살펴본 뒤 인근 미즈카메, 동국사, 고구당, 신희동 일본식 가옥 등을 둘러보면 된다.

걷는 여행 중에는 근대사 유물은 아니지만 한석규 심은하 주연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의 무대인 초원사건관도 있다. 맛집기행 명소로 불리는 이성당 빵집과 중국집 빈혜원을 만나려는 것은 이 투어의 묘미다. 육식을 더 내 근대역사박물관에서 진포해양공원, 제보선창 쪽으로 부지런히 걸으면 사진촬영의 명소로 꼽히는 경암동 철길마을도 만날 수 있다.

군산 | 김재범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 @kobakid

## 신선이 바둑 두며 노닐던 '선유도' 아시나요?

### ■군산여행...그밖의 명소를 가다

군산여행을 당일로 마치지 않고 하루나 이틀 더 머물 계획이면 선유도를 가보자.

선유도는 군산 앞 고군산군도에 있는 섬이다. 고군산군도는 16개의 유인도와 47개의 무인도로 이루어졌다. 선유도 역시 예능 프로그램 '1박2일'에서 김준호 차태현의 미션 여행지로 등장하면서 더 유명해졌다. 선유도로 가는 배는 소동통 여객선터미널과 새만금 비응항 유람선 선착장 두 곳에서 탈 수 있다. 대략 1시간 남짓 걸린다. 시간은 길

지 않지만 코스 자체가 열 파도를 많이 맞아 날씨가 따라 좌우 흔들림이 제법 있다. 배멀미에 예민하면 실내 중앙에 앉거나 좌석 여유가 있으면 누워있는 것이 좋다.

선유도는 오른쪽에는 무너도가, 왼쪽에는 장자도와 대장도가 섬을 둘러싸고 있다. 그래서 처음 도착하면 호젓한 느낌보다 제법 아늑한 정감을 준다. 투어코스는 선유 8경(선유낙조, 명사십리, 망주포폭포, 평사낙안, 무산십이봉, 장자어와, 열영당풍, 삼도귀범)이 일반적이지만 어디까지나 추천 메뉴인 뿐. 정해진 동선보다 그냥 맘 끌리는



선유도 명사십리 해수욕장

데로 움직여야 섬 여기저기 아가자기하게 숨어 있는 깨알 매력을 발견할 수 있다. 단, 돌아가는 배 시간은 주의해야 한다.

해발 100m가 조금 넘는 망주봉(104.5m), 선유봉(111m) 등은 숫자가 주는 높이 이상의 웅장함을 느끼게 하고, 눈으로만 봐도 고운

모래결이 느껴지는 명사십리 해수욕장도 크기 보다 한눈에 들어오는 예쁜 정경이 좋다. 섬에는 3.7km에서 4.7km의 하이킹 코스 3개가 있어 걷거나 자전거를 빌려 돌아봐도 된다. 1박을 할 생각이면 군산 구불길 8길인 고군산길을 도전해 보자. 12.4km의 A코스는 대략 5시간 남짓 걸리고, 8.8km의 B코스는 3시간 정도 소요된다.

서해금빛열차의 정차역 중 당일 또는 1박 투어를 즐기 좋은 곳 중 하나가 군산이다. 오전 8시27분 용산서 출발하는 기차를 타면 11시46분에 군산에 도착한다. 부지런히 움직이면 군산의 핵심코스를 관광하고 오후 4시

군산 | 김재범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 @kobakid

## 20주년 BMW코리아 "혁신적인 제품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갈 것"

BMW코리아 김효준 대표는 5일 인천 영종도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사업 계획과 향후 비전 등을 밝혔다.

BMW는 1995년 수입차 업계 최초로 한국에 진출해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수입차 시장도 급변했다. 한국 진출 당시 BMW의 연간 판매대는 700여대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4만대

를 넘어섰다. 3시리즈, 5시리즈 등 전통적 인기 모델과 그랜 투리스모, X패밀리 등이 인기를 얻으며 전년 대비 21.5% 늘어난 총 4만174대의 자동차를 판매했다. 4만대를 돌파한 것은 수입차 업체 최초다.

BMW그룹의 일원인 미니 역시 작년에 4.3% 증가한 총 6572대의 자동차를 판매하며 연간 최

다 판매 기록을 세웠고, 모터사이클 판매업체인 BMW 모터라드 역시 전년 대비 25.8% 늘어난 1671대를 팔아 2년 연속 두자릿수 성장률을 달성했다. 김효준 대표는 "수입차 대중화 트렌드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며, BMW는 올해 역시 혁신적인 제품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BMW는 올해 뉴 2시리즈 액티브 투어러, BMW 최초의 플러그인(충전식) 하이브리드 스포츠 카인 i8, 4륜 구동시스템인 xDrive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조합한 BMW X5 eDrive 등 총 12개의 새로운 모델을 출시해 성장을 이어갈 전망이다. 또 올해 한국 진출 10주년을 맞는 미니 역시 4월 열리는 서울모터쇼를 통해 55년 브랜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엔진 성능을 갖춘 고성능모델 뉴 미니 JCW와 차세대 클립맨을 선보일 예정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트위터 @serenonow

## 위메프 "채용과정 전면 개편"

박은상 대표 "갑질 논란...부끄럽고 죄송하다"

'채용 갑질' 논란이 불거져 고용노동부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은 소셜커머스 위메프의 박은상 대표가 고개 숙여 사과했다. 박 대표는 5일 서울 삼성동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채용과정의 절차와 소통에 있어 꼼꼼히 챙겨야 할 것들을 놓쳤다"며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죄송하고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이를 계기로 채용절차를 전면 개편하는 것은 물론 인사정책이나 기업문화 전반을 재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위메프는 지난해 말 지역영업직 채용과정에서 지원자들에게 2주 동안 정규직에 준하는 강도의 현장 테스트를 시켜놓고도 전원 불합격 처리해 논란을 낳았다. 문제가 커지자 전원 합격으로 정정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현장 근로감독에 나섰고,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 휴일과 취업 장소, 종사업무를 명시하지 않았으며 8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연장 및 야간 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테스트 기간이 있었음에도 채용 공고문 상에 근무형태를 '정규직'으로만 명시해 구직자에게 혼란을 야기한 데 대한 재발 방지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채용절차 중이었으므로 수습을 일반적으로 해고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는 "시정지시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다"며 "앞으로는 직영과 고과, 한국 사회가 기대하는 바에 귀 기울여 건강한 기업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 @kimyke76

## 삼성전자, SUHD TV 출시

기존 TV보다 64배 세밀한 색상 표현



퀀텀닷(양자점) 기술을 적용한 삼성전자의 신제품 TV가 출시됐다. 삼성전자는 5일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더라운지에서 올해 전략제품인 88·78·65·55인치 'SUHD TV'(사진)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SUHD TV는 퀀텀닷과 함께 삼성전자가 독자 개발한 화질 기술을 반영한 제품이다.

먼저 새로워진 패널과 피크 일투미메이터 기술로 기존 TV보다 2.5배의 밝기, 더 깊은 명암비 표현이 가능하다. 나노 크리스탈 기술을 적용해 미세한 나노 크기 입자가 순도 높은 색을 보여준다. 또 기존 TV와 비교해 64배에 달하는 세밀한 색상 표현이 가능해 빛에 따라 수천개로 달라지는 미세한 차이까지도 전달한다. 아울러 리마스터링 엔진으로 콘텐츠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각 장면 밝기와 색감을 실감나게 풍부하게 표현한다.

몰입감을 높인 커브드 디자인도 특징. 4m 내외인 한국 거실에 최적화된 4200R 곡률의 커브드 화면은 시야 영역을 넓혀 실제보다 화면이 더 커 보이는 '피노키오 효과'를 준다. 올해 출시하는 모든 스마트 TV에는 타이젠이 적용돼 완전히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선사한다. 직관적 사용자환경(UI)과 '추천 콘텐츠', '최근 콘텐츠' 등 사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들 하단 바를 이용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출고가는 JS9000모델 65인치가 790만원, 55인치 549만원.

김명근 기자

## 레이저용품, 디자인 혁신 시대

광택 아웃도어·수면패턴 측정 웨어러블기기 인기

스포츠·레이저 인구의 증가에 따라 관련 용품업계의 경쟁도 치열하다.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는 남다른 성능과 차별화된 디자인이 필요하다. 성능은 기본, 기존 디자인의 틀을 깨고 디자인의 혁신을 이룬 제품들을 살펴봤다.

#### ●캘러웨이골프 '미드 컬렉션'

캘러웨이골프의 '오디세이 미드 컬렉션'은 골프를 커버와 유사한 소재인 '퓨전 RX 인서트'를 적용해 제품을 차별화했다. 타원형 패턴의 스틸 페이스가 하나로 결합된 새로운 인서트를 통해 부드러운 터치감과 정교하고 일관된 퍼핑을 제공한다. 디자인도 돋보인다. 매트 실버 컬러의 헤드와 고급스러움을 강조하고, 헤드 바닥은 블루와 레드 컬러의 오디세이 로고를 포인트로 넣었다. 한 장판 스타일로 무게추에 옐로 컬러의 독특한 문양을 넣어 소장 가치를 높였다.

#### ●코오롱스포츠 '레스피로와 토포즈'

코오롱스포츠에서는 일상에서의 활용을 선호하는 트렌드에 맞춘 컬렉션을 선보였다. 남성 디테처블자켓인 '레스피로'는 과감하게 선을 살리고 가죽 느낌의 광택 원단을 사용해 시티 아웃도어 룩을 완성했다. 여성용 저지 자켓 '토포즈'도 경량 우븐 소재에 다운 충전한 패드를 덧댄 스타일로 보온성과 견고함을 높였다.

#### ●핏비트 '플렉스'

핏비트(Fitbit)는 일상 속 활동량과 수면 패턴 등을 기록하는 밴드형 제품인 웨어러블기기 '플렉스'를 선보였다. 손목이나 옷에 착용하면 걸을 수, 이동거리, 칼로리 소모량, 활동적 시간 및 수면 효율 등을 측정해준다. 웰스케이 기기로 보이지 않는 트래킹한 디자인을 갖췄고, 밴드(9가지 컬러)만 교체하면 그날 패션에 따라 액세서리처럼 착용할 수 있다.

원성열 기자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트위터 @simss23